제주서 열리는 전국무용제 분위기 달군다

제주무용협회 이달 31일~6월 2일 제주예선대회 사전홍보단은 도내외서 성공 개최 홍보전 박차

오는 9월 19년 만에 다시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33회 전국무용제를 앞 두고 예선전이 열리며 분위기를 뜨 겁게 달굴 예정이다.

(사)대한무용협회 제주특별자치 도지회(제주무용협회)는 전국무용 제 본선 무대에 진출할 제주 대표팀 을 뽑는 제주지역예선전을 이달 31 일부터 6월 2일까지 제주도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대극장에서 진행한다. 이번 예선전엔 총 5팀이 참가한다.

첫날인 31일 길 Art Dance Company의 '아침 해 산중을 달리 다' (안무 박선정)를 시작으로 6월 1 일엔 제주오름무용단의 '탈피, 훨훨 날지 못하는 나비'(안무 박윤희)와 U-Dance Company의 '惠化 혜화' (안무 유수정) 무대가, 이어 6월 2 일엔 탐라S발레의 'Think…'(안무 손민호)와 오경실무용단의 '돌, 할 망'(안무 오경실) 공연이 펼쳐진다. 예선전을 축하하는 이수진의 '적

푸살'과 예품무용단의 '동그대당 실' 초청 무대도 준비돼 있다.

공연은 31일과 6월 1일은 오후 5 시, 6월 2일은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다. 관람료는 무료다.

한편 제주무용협회는 제33회 전 국무용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내 행사·축제장을 비롯 국내외에 서 사전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엔 일본 오사카 일원에서 열린 한일 문화교류 행사에서 전국 무용제의 제주 개최를 알렸고, 이 달 들어 대구에서 열린 2024 대구 파워풀 페스티벌에 참여해 길거리 퍼레이드 공연과 홍보 부스를 운영

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전국 최대 규모의 무용 축제인 제33회 전국무용제는 제주특별자 치도와 (사)대한무용협회 주최, (사)대한무용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회 주관으로 오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제주아트센터, 제주 문예 회관,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도내 일원에서 펼쳐진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의 대표무용단 등이 참가하는 '전 국무용제'는 제주에선 지난 1996년 (제5회)과 2005년(제14회) 두 차례 개최된 바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창작 현장 가까이서… "작업 진행 중"

예술공간 이아 입주작가 쇼케이스 릴레이 전시

예술가들의 창작 현장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쇼케이스 전시 '작업 진행 중 Work in progress'가 제 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예술공간 이 아에서 진행 중이다. >> 사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는 예술공간 이아가 입주 작가의 창작 과정과 작품세계를 홍보하고 더 많 은 사람들에게 작가를 알리기 위해 처음 기획한 전시다.

전시는 5월 김승환 작가(사진 영 상)를 시작으로 박길주(회화), 고 은혜(설치), 전기숙(회화), 이선희 (회화), 이계나(회화) 작가 순으로 12월까지 릴레이전으로 진행된다.

예술공간 이아 3층 이아살롱에 마련된 6평 남짓의 전시 공간은 입 주 작가의 창작 스튜디오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분위기로 꾸며졌다. 된다.



작가의 작업 도구, 소품 등을 배 치해 실제 작가 작업실 분위기를 현실적으로 재현하고, 아직 완성되 지 않은 작품의 밑그림이나 스케치 드로잉 북 등을 비치해 최종 완성 되기까지 이어지는 작가의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게 했다.

릴레이전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입주 작가와 관람객이 상호 소통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별도 운영 오은지기자





문화가 쪽지

수필·그림 아우러진 수화전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에서 수필 과 그림이 아우러진 수화전(隨畵 展)이 진행 중이다.

수화전은 시 형식으로 쓴 짧은 수필. 즉 시수필과 그림을 함께 그 려 넣어 전달력을 높이고 볼거리를 함께 제공하는 전시회다.

사단법인 백록수필작가회(회장 송창윤)와 제주대학교평생교육원 수필창작아카데미(지도교수 안성 수) 공동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전 시엔 41점의 작품이 내걸렸다.

카데미에서 26년 동안 수필을 가르 로, 1998년 12월 창단했다. 치고 있는 안성수 명예교수의 특강 이 진행됐다.

에서의 전시가 마무리되면 제주대 태의 앙상블과 연주기획을 통해 제 최 예정인 제33회 제주 전국 학생 학교 학생회관으로 장소를 옮겨 28 일까지 전시가 이어진다.

제주피아노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피아노앙상블이 열세 번째 정 기연주회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이달 21일 오후 7시 30분 제주대 학교 아라뮤즈홀 무대에서 펼쳐질 연주회는 특별출연하는 앙상블 퍼 플과 함께 모차르트, 하이든의 작 품부터 린친챙의 제주 판타지까지 다양한 분위기의 곡들로 꾸며질 예 정이다. 무료 공연이다.

제주피아노앙상블은 피아노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악기와 의 앙상블 연주를 목적으로 연구 전시 첫날인 19일엔 수필창작아 및 연주하는 전문음악인의 모임으 번 오디션이 신인들의 역량을 발휘

클래식과 함께 크로스오버와 재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즈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기 한편 이달 22일까지 학생문화원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 주의 클래식 음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제주음악협회 신인 6명 발굴

(사)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회(제주음악협회)가 주최하는 2024 신인음악회 'Hope' 무대에 오 를 6명의 신인 음악가가 선정됐다.

제주음악협회가 지난 11일 진행 한 오디션 결과 ▷고다현(피아노) ▷정소영(클라리넷) ▷김용석(트 롬본) ▷김윤아(바이올린) ▷김원 준(첼로) ▷임지원(성악) 등 6명이 합격했다.

제주음협 관계자는 "문화예술의 의미와 역할이 늘어가는 현대에 이 할 수 있는 시작점의 역할을 할 수

션 합격자 6명과 오는 6월 1일 개 음악 콩쿠르의 대상 수상자 1명의 협연 무대로 마련될 예정이다.

제주합창단 가족음악극 선물

도립제주합창단이 기획연주회 '가 족음악극 선물'을 이달 28일 제주 아트센터 무대에 올린다. 가족 모 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극으 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가족음악극 선물'은 우연히 엄 마의 육아일기를 읽게 된 '나현'의 이야기로 가족에게 가끔은 소홀하 고 무심하지는 않았는지를 되돌아 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뮤지컬 형태의 공연이다.

기존 합창단 공연의 틀을 벗어나 풍부한 음향과 화려한 조명이 곁들 여지는 이번 공연에서는 '당신은 2024 신인음악회 'Hope'는 오디 모르실거야', '님과 함께'등 추억 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

> 어린이 합창단 '클럽 노래하자 춤추자(CLUBZAZA)'도 무대에 오른다. 무료 공연이다. 오은지기자

모차르트로 돌아온 백건우 서귀포예당 무대에

피아니스트 백건 우(사진)가 모차 르트와 함께 서귀 포로 찾아온다.

오는 6월 4일 오후 7시 30분 서 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백건우 리사이틀이 열 린다. 서귀포예당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공연으로 마련된 자리다.

피아니스트로 행보를 시작한 지 올해로 68년, 일흔을 넘긴 나이에 도 매일 피아노 연습과 매년 다른 작곡가의 음악과 삶을 탐구하며 진 리를 갈구하는 백건우를 사람들은 '건반 위의 구도자'라 부른다.

백건우는 이번 리사이틀에서 '모 차르트-프로그램1'을 연주한다. 지 금껏 연주했던 모차르트의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들이 골고루 섞여 있다.

공연은 만 6세 이상 관람할 수 있 다. 일반예매(1층 2만원, 2층 1만 5000원)는 23일 오후 7시부터 서귀 포시-E티켓에서 가능하다. 오은지기자

지역 문화공간 찾아가는 '가근한 바람' 운영

제주시는 읍면동 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2024 가근한 바람' 을 진행한다. 수준 높고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공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프로 그램이다.

제주시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비인)에서 펼쳐진다. 공동 주최·주관하고, 예술협동조합 크라와의 협업으로 운영될 '가근한 바람'은 이달 24일 조천 주민교류

센터를 시작으로 읍면동 지역 문화 공간 7곳을 찾아간다.

국악 한마당, 클래식 기타, 연극 공연 등 3개의 프로그램으로 짜여 졌는데, 6월 1일엔 가족 연극 '어딘 가, 반짝'이 제주영상·문화산업진 흥원 블랙박스형 공연장 Be IN;

공연 관람은 무료이나, 연극 공연 은 Be IN; 극장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매해야 관람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



·공통사항 – 왕복항공권,전일정호텔(2인1실),관광지입장료,일정의 식사포함,최소 10명 출발가능, 인솔자동행(부분별),유류할증료포함, 1억원 여행자보험 ·불포함 – 비자대(부분별),기사/가이드경비 (부분별), 현지선택관굉 고객센터: 064-747-0404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김현준 (주)모두투어네트워크 대표: 우중중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6 백남발당 5층 사업자 등록번호: 202-81 ~(5295 통신판매압신고번호: 중구 제03500호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1989-04(서울특별 시중구) 영업보충보함: 일반여행업보충 19억 1천만원, 기획여행업보충 19억 1천만원, 기획여행업보충 19억 1천만원, 기존인함, 있음(상품별 상이) 선택경비(상탁관광):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 발생할 수 있음, 선택관광 참여부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마참여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계신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odetour.com)를 참고해주세요. 가이드 및 가사경비: 현지 별도 지불(일부상품제외)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여행상품 가격 포함 내역: 유류혈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 개발 기금, 여행자보험, 식사요금, 현지관광지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이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